

스승의 '성희롱' 토로하다 끝내 울음^{94. 3.23}

서울대 조교 4차공판 직접 참석...신교수쪽 변호인 반박 집요

국내 첫 '성희롱 재판'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던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26)씨 사건에 대한 4차공판이 22일 우씨 자신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는 서울대생을 비롯해 여성단체 회원 2백여명이 방청석을 메워 재판정을 달구었다.

우씨는 원고 본인 신문사항에서 자신이 조교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신아무개 교수가 20여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손과 어깨를 어루만지는 등 집요하게 성희롱해왔다고 생생한 표현을 써가며 주장했다.

우씨는 "얇은 옷을 입고 온

날에는 체온이 직접 전달될 정도로 몸을 밀착해와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털어내고 손을 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씨는 또 자신이 짧은 치마라도 입고 오는 날에는 신 교수가 자신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는 눈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교수쪽 변호인은 신문이 시작되자 "우씨의 성희롱 주장은 과대망상이며 신 교수의 행동은 단순히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지 않느냐"는 등의 반박을 집요하게 펼쳤다.

성희롱 관련 첫 판례를 세워야 하는 재판부도 우씨의 답변에 미심쩍은 점을 날카롭게 파고 들었다. "조교직에서 해임되지 않고 계속 근무했더라도 이

문제를 제기했겠느냐."

우씨는 이에 대해 "본인에 대한 성희롱만이었다면 참고 넘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신 교수의 행동은 여러 전임 조교들에게 모두 일어난 일이라 그냥 넘길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문제가 사소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자 우씨는 격앙되기 시작해 재판 끝무렵에는 자신에 대한 접촉이 가벼운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것이었음을 토로했다.

수치심으로 마지막까지 감추고 싶었던 말을 내뱉고 만 우씨는 그때까지의 차분했던 어조가 흔들리면서 마침내 울먹이고 말았다.

김의겸 기자